

1940년대 초에 출생한 이강소

40년대 초에 출생한 한국의 미술가들에게도 독특한 시대환경,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무섭고도 혹독하게 빠른 변화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달려 온 경험들을 갖고 있다.

한국 근대미술도 이들 세대에는 멀고 먼 전설이 아니다. 근대미술 초기의 여러 작가분들도 이 세대에게는 선생님들이요 선배님들이다.

나는 서울에 있는 미술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조그만 지방 도시인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란이 일어나고 피난의 와중에서도 미술반 활동을 하고, 미국공보원 문화원에서는 피난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중, 고등, 대학을 미술반과 회화 전공을 했지만,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에게서 미술 전문 분야에 있어, 도움 말씀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로 이끌어 주신 적이 없었다는 기억이다.

어릴 적 서동진, 이인성 선생님들의 작품들은 자주 봤지만 이미 정치인이 되셨거나 작고 하셨고, 주경 선생님은 정치인으로 변신하셨다가 만년에 다시 작가로 돌아오셨지만, 논리적 이라기보다 감성적인 말씀을 주셨다. 존경했던 손일봉 선생님은, 세잔의 정물 구도를 애용하셨지만 사실주의에 기반한 것인지 인상주의를 새로 해석하신 것인지에 관해선 아직도 나에게겐 의문이다.

50년대 말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그룹을 결성해서 어린 혈기로 그룹전을 2회에 걸쳐 개최한 적이 있었지만, 선생님들이나 선배분들의 미술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은 없었고, 고개만 끄덕이신다거나 재미있다는 단순한 단어밖에 기억이 없다.

대학에 들어가서, 서양미술사 강의는 르네상스까지도 못 가고, 한국미술사는 삼국시대도 못 마치고 종강, 실기 시간 액션페인팅에도 근대 회화적 배색, 구성의 조언 등으로, 드디어 복도로, 혹은 간섭받지 않을 별도의 실기실로 옮겨 졸업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우리들의 전통적인 사고의 관습에서 온 것이라고 요즈음 절실히 느낀다. 2천여 년의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세계를 분해, 분석하려 하지 않았다. 나와 세계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연결된 유기적인 관계로 생성 소멸하는 기운이나 도에 따른 것이라 이해해 왔다. 그러니까 분석적이거나 이성적인 사고보다 감성적이거나 직관에 의해 세계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은 것이 그러한 사태를 일으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전통적인 성향에 서구 근대교육을 받고, 생활마저 서구화 되어가는 이 세대에게는 중첩된 문명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도 세계의 양대 문명의 이질적인 사고의 전통을 함께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 세대에게 가장 예민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혼란 가운데 1970년 전후로 이 세대는 왕성한 그룹 활동과 현대미술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감과 욕구는, 서구의 여러 선진국들과 동시대에 지구상에 살고있는 자부심을 가진 신세대(사실은 이 세대는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 선진국의 소비사회시대를 경험하며 거쳐 가는 세대다)로서 당당히 자신들에게 적절한 현대미술의

방법론을 형성하여 세계의 현대미술계와 소통할 수 있는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동아시아 문명과 전혀 다른 양태로 전개되어 온 서구 문명은 뉴턴, 그리고 데카르트 이후 고전 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자기중심의 세계관의 확장으로 세상을 서구화 시켜 버리는 사태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세상은 급기야 후기 소비사회로 나아가고, 세계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분해하던 관습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이념이 이념을 놓고, 서로를 불신하고, 심지어 상품이 자신을 대신하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제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통합으로 향하는 이른바 세계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나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고의 내면들은 각자 다르게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분리되어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서구적인 근대화 사회로의 변화는 인류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생활을 제공한 것은 분명히 유익하지만, 근대 정신, 즉 서구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오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지난 20세기의 100여 년에 걸친 거시과학과 미시과학의 발전으로 판명되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동시성이란 상대적인 것이며, 절대시간, 절대공간이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리고 20세기 미시세계의 탐구는 물질이 본래 역동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 주었다. 그것은 원자의 구성요소인 아원자적 입자들이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호작용들의 불가분한 망의 불가결한 부분들로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입자 상호작용들은 물질세계를 형성하는 안정된 구조를 낳게 하지만 그 물질계는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울동적인 운동을 하며 진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 우주는 끊임없이 운동과 활동을, 즉 에너지의 지속적인 우주적 무도를 하고 있다.

지난세기 동안 현대과학의 발전은 이 세계의 자연을 합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혀 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떨어진, 자연으로부터 떨어진 나를, 세계와 유기적인 관련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부터 감성적, 직관적인 영역의 정신과 신체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0세기의 실존철학이나, 이념종언의 철학이 쇠퇴하고 21세기 초 세계화 시대에 이르러 윤리적 성향의 철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사실 유기론적인 세계관을 수천 년을 이어 온 동아시아의 정신사는 바로 윤리학의 원전일 것이다.

4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 속의 한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서구의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 초현실, 추상표현주의, 팝 아트 등 생리적, 정신적 성장에 따른 어이없는 영향을 받아 온 우리 세대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70년 전후에 집단적인 현대미술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71년 신체제 3회전이 서울의 프레스 센터 갤러리에서 개최되었을 때, 나는 이제까지 나를 구축 해 오던 근대미술에 관한 사고의 잔재를 결별하자는 의미에서, "근대미술을 모시다."라는 이벤트적인 설치작업을 단행했다. 그것은 테이블 위에 커다란 검은 직육면체를 올려놓고,

테이블 좌측은 검은 칠을 한 대나무 묶음, 오른쪽엔 검은 항아리에 향을 피우고, 이들 뒤편에는 병풍 모양의 흰 캔버스를 둘러 펼쳤다. 이 설치의 마치 제사를 지내는 형식의 양식을 따랐다.

그 해 경북공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71' A.G.전에서는 낙동강에서 베어온 백색 칠의 갈대밭, 73'년 명동화랑에서의 "선술집(소멸)", 75년 제9회 파리 비엔날에서는 "닭의 퍼포먼스", "사슴"(프랑스 국립근대미술관), 77' 제3회 대구현대미술제의 낙동강 강정 이벤트, 77', 'K Studio'에서 실시한 퍼포먼스 "Painting (별칭: 자화상, 이 작업은 최근 2012-13년 런던 테이트 모던의 "A Bigger Splash"전에 출품되었었다). 78', 비디오 작업 "Painting" 등은 각기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이 모두는 우리들 일상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을 전시장에 옮겨 놓음으로 해서, 관객들이 일상에서 무심하게 지내 왔던 경험들을 전시장에서 새삼스럽게 반추해 봄으로써 다양한 상상과 사고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 작업이다. 작가 개인의 어떤 표현의 전달 수단으로서가 아닌 방법이다.

당시 세계적으로 퍼포먼스나 비디오 작업이 비교적 초기였으나 장차 미술의 영역에서 각기 역사를 갖는 분야가 될 것이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현대 미술제를 통하여 확산시켜 보자는 욕망이 강해서, 집단적인 이벤트 발표회, 집단적인 비디오 작업 발표회를 기획하기도 했다.

한편 설치작업이나 퍼포먼스, 비디오 작업의 경험과 더불어, 개인적인 정서의 표현, 혹은 감정이입적인 근대적인 구조를 떠난, 경험을 공유하더라도 더욱더 자유로운 체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형식의 방법을 전통적인 회화 혹은 입체의 영역에서도 확장해 나갈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 보았다. 그래서 그 실험을 우선 캔버스를 이루는 재료인 천 그 자체를 이용해 보았다. 74년의 작업들에서 천에 실크스크린으로 이미지를 찍고 올실들을 조금씩 혹은 많게 각기 뽑아 보았다. 이미지 자체의 개념은 비슷하나 올실의 양에 따라 이미지는 차별성이 드러났다. 이듬해에는 캔버스 자체만으로 올실을 이리 저리 뽑아 보았다. 같은 캔버스이지만 각기 차별성이 민감하게 들어 났었다. 그 후 80년에 이르기까지 이 실험을 계속했다. 표현의 작업이 아니라 관객이 시각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로운 차별성의 경험을 갖게 한다는 믿음에서였다.

80년에는 만드는 조각이 아닌 만들려지는 조각의 실험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른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각은 어떤 종교적 이념이나 문화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근현대에 와서는 작가의 어떤 표현을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제작되어 왔다.

나는 동아시아의 서화에서처럼 일 획이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체험과 수련, 수양을 통해서 무심히 얻어지듯이, 만들려지는 조각, 서화의 일 획처럼 젖은 흙의 덩어리가 무심히 던져졌을 때, 예상치 못했던 양상이 벌어지는 현상, 합리적, 이성적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드러남, 거기에 매료되어 시간이 날 때면 지금도 던진다.

근대적인 방법의 회화가 아닌 새로운 방법의 회화의 실현은 당시 누구에게서나 매우 어려운 과제였지 않았나하고 기억한다. 물론 훨씬 이전부터 훌륭한 작가들에 의해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모두들 좀 더 획기적이고도 장기적인 깊이를

가진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캔버스와 이미지의 실험 이후 80년대 중반, 회화 역시 그려지는 회화, 이성적 혹은 개념적인 의미에서의 회화가 아닌 그려지는 회화, 동아시아 전통 회화에서 보듯이 수련과 수양, 절제와 겸양, 인생의 맑은 경험에서 무심히 그려지는 회화, 기의 세계와 리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듯 맑디맑은 회화는 불가능할 것인가.

추상적 필획이든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든 끊임없이 획을 저어보자. 이성적인 무의식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무심의 필획, 모든 신체와 마음, 붓과 캔버스가 물결을 타듯, 유연하게 일체가 되어 자연스런 리듬을 타게 되면, 거기엔 캔버스엔 맑은 기운과 함께 어디인가, 예상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져 저 끊임없는 자유자재한 세계, 기운의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하염없이 드러나게는 할 수 없을 것인가.

서구의 이성적인 오랜 역사는 이 넓디넓은 우주로,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나의 세계로 시선을 좁혀 왔다. 그래서 이 세계를 부분 부분으로 분해하고 자신에게 편리하게 해석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오랜기간 동안 이런 실천을 위한 업적들을 이룬 위대하고도 천재적인 예술가들, 과학자들을 배출해 왔다. 동서양의 세계를 보는 전통적인 사고관습을 비교해 본다면, 서구 고전적인 물리학에서는 하나에서 많음을 보려하고 물체를 3차원 공간에 현존하는 것으로만 보는 데 반해서 동양사상은 그 직관적 방법으로 많음에서 하나를 보려하고 일체를 생멸하는 변화로서 초월적으로 보는, 즉 4차원적 시공의 차원에서 보려한다. 우주를 기본적 실재가 없는 관계들의 그물로 보려는 견해는 동양적 사고의 특징이다.

그래서 20세기의 현대물리학이 동양의 사상들이 유효하다는 증명을 해 온 것이어서,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기계론적인 사고에서 유기론적인 사고로의 문화 혁명을, 문명전환의 화급한 시기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계화의 시대에 산산이 조각난 개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세계와 인류를 위한 새로운 윤리학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특히 한국은 역사시대 이전부터의 샤머니즘, 이천여 년의 흐름 속에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적응과 토착화를 위한 변화를 지속 해 왔고, 특히 조선조 500여 년을 성리학의 연구와 그 실천을 위해 온 나라가 이런 문제와 씨름해 왔었다.

그 공과는 뒤로 하고, 성리학에서는 세계와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경"공부로 일체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내면의 수양, 그리고 "격물치지" 즉 존재하는 사물과 행위의 이치를 하나하나 궁극적으로 탐구해 나가다 보면, 나중엔 저절로 관통할 수 있게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40년대 초의 출생 작가들의 마음속엔 이러한 전통적 사고의 관습이 친밀하게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